

뉴스 & 뉴스

14일 총선불교연대 토론회

총선불교연대(공동대표 청화·박광서)는 새시대불교포럼 주관으로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와 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재경 기자

선학원 '선학강좌' 개설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이 춘계 선학강좌를 열어 일반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4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선학강좌는 '선가귀감'을 토대로 참선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도필선 기자

병원불자회 연합수련회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을 위한 불자회 대표자 간담회가 2월24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불자회 대표들은 불교수행체제, 직장법회 활성화 유도, 연합조직 건설 등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18일~19일 용주사(미당)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연 기자

경북 불교복지관 협의체

경북지역의 교계 복지관 협의체가 결성될 전망이다. 구미 금오·문경 모전·포항 학산·경산 백천·상주 냉림 등 이 지역 5개 복지관 실무자들은 2월24일 금오사회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0일 백천사회의복지관에서 '경북불교 사회복지관협의회'를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우리는 선우 울산사업 확정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실 박광서)는 2월19일 정기총회를 열어 2000년 사업계획 및 예산 4억3천만원을 확정했다. 2000년 사업으로는 6차에 걸친 선우 비전 토론회, 가족봉사활동의 일환인 장애인 나눔이 행사, 캠프교사 집체교육, 청소년 여름 문화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기독교계 역사왜곡 심각

삼국사기·삼국유사 부정... '한민족 선민설' 주장

기독교계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 한민족의 기원을 노아의 홍수 이후 동방으로 이주해온 기독교인들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고조선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학계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미 기독교계는 90년부터 한민족의 동방이주 기원설과 가야시대 아유타국 공주를 통해 기독교가 유입했다는 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역사유적과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시키고 있다. 또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정치적 상황과 권력 구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이 어려웠고 쓰는 사관에 의해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역지주장도 펴고 있어 자칫 기독교인 국민들에게 역사를 왜곡해 받아들여 줄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와함께 '한민족 선민설'도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사화 하는

동화사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곧 이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지부장 성덕) 동화사 소속 노인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 (대구시 중구 약전골목)이 빠르면 오는 3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 동화사는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자비의 집 위탁운영권을 제9교구신도회로 이관했으며, 10일 신도회는 최근 보현사역 공터 40여평(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3-32)의 부지를 확보, 무료급식소 전용 조립식 단층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자비의 집은 지난 95년 동화사에 소속된 이후에도 임원간의 갈등과 공공유용등으로 잠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해 8월 23일 '자비의 집' 원장인 김 모씨를 비롯한 임원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화사는 자비의 집을 직접하기로 하고 당시 동화사 사회국장인 현인섭을 원장에 임명했으나 스님이 총무원 기획국장으로서 발령남에 따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9교구 신도회로 위탁운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윤호 기자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 유학했던 젊은 기독교 교수들이 타블로이드판 10면분량으로 신문을 제작,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에게 한민족 선민설 등의 자료를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계 역사학자인 창조사학회는 선민설을 설명하며 처음 여호와 신이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았고, 이들이 계속해 동쪽으로 이동한 만큼 한민족이 여호와신의 선민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독교인 교정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김성일(60)씨가 대하역사소설 '동방(전 5권)'을 발표하며 고조선 삼국시대까지도 기독교국가로 기술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소설 <동방>에는 고조선을 비롯한 삼국시대가 목실한 기독교 국가였으며, 이차돈의 순교는 기독교 국가였던 신라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생긴 충돌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황옥 공주가 기독교를 전래했다고 왜곡하고 가야를 동방 기독교의 맹주국

기로 기술하는 등 기독교중심의 역사왜곡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기동교수(동국대 사학과)는 "민족이주설은 1930년대 일본의 역사학자인 다카구미 준치로가 고대역사서인 <한단고기>에 근거하여 한민족의 조상을 수메르인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을 펴 일제시대 황국사관으로 이용됐다"며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념적인 조국이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동방이주설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현재 발표된 민족이주설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보물 1292호 철조노사나불이 안치된 심화사 적광전 건물에 발파진동에 따른 뒤돌림에 의한 균열로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다.

삼화사 '소음·진동 몸살'

쌍용양회 석회석 채석공사 계속 수행환경 파괴-문화재 훼손 '위기'

사찰측 '안전진단' 요구. 신라 천년 고찰인 동해 삼화사가 인근에서 진행중인 쌍용양회 석회석 채취공사로 인해 심각한 수행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물 1277호 신라3층석탑과 보물 1292호 철조노사나불 등 귀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삼화사는 쌍용양회 발파에 의한 석회석 채취로 사찰에 진동 및 소음 피해를 계속 입힐 경우 성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은 2월24일 "쌍용양회가 지난 30여년간 사찰에서 1.4킬로미터 떨어진 정목산과 두타산 일대에서 발파에 의한 채석작업을 계속해 지난 97년까지 1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이후에도 3억여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행스님은 지난 97년 쌍용양회측과 피해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액(10억원)의 절반가량인 4억 3천여만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받고 발파공사장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측은 지난 97년 쌍용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

로, 발파진동과 소음이 사찰건축물에 영향을 준만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안전협회와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에서 수행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행스님은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강원도, 그리고 조계종과 쌍용양회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사찰의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4일 열리는 중앙총회에서 해인골프장, 지리산법 문제와 함께 삼화사 사찰환경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이은자 기자

잇달은 '불자들의 보시행'

전청금-김길호-김용기씨 재산 사회환원

얼마전 곽호성·이성균씨가 자신의 재산을 승가원에 기탁해 화제를 모은데 이어 평생 모은 재산을 기탁 또는 장학금으로 내놓은 세 불자가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전청금 할머니(75·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행사와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2억원을 지난해 21일 영남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할머니는 "평생 못배운 것이 한이 됐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전청금 할머니

전 할머니는 6.25전쟁 후 군인이었던 남편과 함께 대구로 이주한 후 민화가게, 담배가게 등을 해가며 돈을 모았으며, 80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대구 불광사 자비회장을 맡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수십년된 옷을 그대로 입고 버스타비를 아껴 남몰래 고아원이나 교도소를 찾아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불광사측은 전했다. 영남대는 전 할머니의 사연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이 장학금을 할머니의 발명을 따서 '전수도행 장학금'이라 명명했다.

하는 고교생 4~5명을 선정, 해마다 7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장학금을 늘려 많은 지역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장우동에서 30여년간 살다 지난 82년 호주로 이민갔던 김용기(71)씨도 최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을 사회복지사업에 써달라며 성북구에 기증했다. 김씨가 헌납한 재산은 장위1동에 소재한 66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채와 대지 51평 등 시가 4억5천만원에 달한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사양했으나 이름만은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며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헌납단체를 모색하던 중 최일선 공동단체에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증직후 전남 구례 화엄사를 참배하고 상경해 현재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불교관계 서적을 집필하고 있으며, 한달 뒤 출국할 예정이다. 한명우·이윤호 기자

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시 남주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28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친 김길호(63)씨는 자신의 발명을 딴 '법전장학'을 설립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중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김씨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대학에 진학

길상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었다 지난해 숨진 김영한 보살로부터 대원각 터를 기증받은 조계종 길상사는 2월23일 김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50여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길상사측은 소장에서 "김 보살

이 길상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50여억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증하는 것처럼 유언에 명시했지만, 96년 길상사에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 같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Advertisement for 'Buphwa Sambu-gyeong' (법화삼부경) featuring 8 volumes. The ad includes a large image of the books, a list of features (특징),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Seonji-gwan Eumhui. The text describes the books as a collection of sutras and commentaries, suitable for both monks and laypeople, and highlights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